

“100년 도약” 함평군, 서남권 중추 도시 ‘대전환’

민선8기3주년

청중장년 정책·스마트농업·사계절 관광
RE100 산단 조성·비전사업 2.0 본격화
이상의 군수 “지속가능 미래도시 구현”

이상익(사진) 함평군수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희망찬 함평’을 내세워 전남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후반기 비전을 제시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서남권 중추 도시 실현을 위한 ‘함평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을 2023년



부터 본격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는 핵심 사업을 보완한 ‘비전사업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8천4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농업, 첨단제조업, 관광, 디지털 산업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 한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빛그린국가산단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기업과 금호타이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 중이다. 함평군은 배후지에 첨단도시를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력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하반기 공개될 ‘비전사업 2.0’에는 ▲RE100 기반 국가산단(330만㎡) 조성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225만㎡) 개발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인구 유입,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 부문에서는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빛축제 등 사계절 축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새롭게 선보인다.
스포츠·여가 인프라 확충도 병행 중이며 군민 숙원이던 함평실내수영장이 올해 초 문을 열었고, 2028년까지 종합스포츠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해

AI·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함평천지유통클러스터’는 2년 간 320만 달러(43억여원) 수출 협약, 63억원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졌다. 축산업도 스마트축산단지, 힐링파크 등을 포함한 ‘AI 첨단 축산융 복합밸리’로 육성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출산율 상승(합계출산율 1.3명, 전국 7위), 생애주기별 서비스, 건강 돌봄 등으로 성과를 냈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돌봄·늘봄 통합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 최초 대학 등록금·생활비 전액 지원 인재양성기금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정책도 체계적으로 확대해 청년센터 운영,

일자리·창업·정주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건강 수술 지원, 치매·정신건강 돌봄 등 복지안전망도 촘촘히 구축되고 있다.
민선 8기 3년 간 함평군은 중앙부처 및 도 평가에서 총 110건의 수상 성과를 기록했으며, ‘국향대전’은 전남 대표 축제 1위에 선정돼 문화관광 경쟁력도 입증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와 복지,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매진하겠다”며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약속을 군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며 미래 100년을 선도할 서남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김병중 무안부군수 “군민 소통…실질적 성과 만들 것”

청년·지역 균형 발전 분야 집중

무안군은 2일 “김병중(사진 왼쪽)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희망과장이 7월1일자로 제28대 부군수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병중 부군수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자치행정과, 법무담당관, 대변인실, 청렴지원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기획 역량을 쌓아온 행정 전문가다.
김 부군수는 취임 소감을 통해 “무안의 발전을 위해 군수와 한마음으로 뛰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해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청년과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 그간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안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안군은 김 부군수의 취임으로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통·공간·현장 중심의 군정’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14배 기록”

‘1섬1정원’ 등 지역 축제·관광 수요 대응

신안군은 2일 “2024년 4분기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14배를 넘는 생활인구 52만8천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천28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 중 하나다. KTX로 목포까지 이동한 후에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6시간이 소요되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신안군은 ‘1섬1정원’, ‘사계절 꽃축제’, ‘1섬1뮤지엄’ 사업 등 지역 특

색을 살린 정책을 통해 관광 수요와 체류 인구 확대를 이끌어왔다.
신안군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에 활용된다면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접근성,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시, 근로환경 개선 산업단지 정비

동수오량농공단지에 근로자 쉼터 등 설치

나주시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본격 나선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가운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천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조성돼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 및 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구성됐다.
동수오량농공단지에는 기계, 금속, 식품, 전기 부품 등 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나주시는 이번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내 일상 환경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공장 운영 안정성 제고, 물류 효율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볼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센터는 문화, 여가,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부터 3년간 노후화된 인도와 공원을 정비하고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는 등 산단 기반 시설을 차려차려 손볼 계획”이라며 “근로자와 입주 기업, 인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시,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낭비’ 논란

불필요 구간 펜스 신규 설치 등 전면 교체
市 “20년 경과 부식 위험…안전상 조치”

목포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둘레길 정비사업을 놓고 ‘과도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8천840만6천원을 투입, 목포시 용해동 둘레길 정비사업(지역개발)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도급으로 기존 울타리 철거 1식과 기초 설치·난간 제작(112경간), 관급으로 디자인형 울타리(112경간) 설치 및 보행매트 구입 등의 자체 설치를 진행했다.
목포시는 오래전에 설치된 목재 펜스가 부식되고 파손이 심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 전역 도비를 확보해 유지관리와 미관을 고려해 전체 구간을 난간으로 교체했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특히 난간 연장 설치 구간(약 20m·사진)은 기존에 난간이 없던 급경사지 옆 등산로로,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완 설치했다. KT중계소 인근의 야자매트는 기존 설치분이 노후·훼손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신규 설치 등

으로 사업 추진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분야 한 전문가는 “안전 위험이 크지 않은 구간에 20여m의 목재 난간을 신규 설치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라며 “해당 구간은 남퍼리지도, 지름길도 아닌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자매트가 깔린 구간은 경사가 급하거나 질퍽하지도 않고, 바닥에 단단한 깎돌이 깔려 있어 매트는 쉽게 찢어지고 해서 수개월 내 재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2005년 설치된 기존 목재 난간이 20여년이 지나 부식과 파손이 심해져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전역 도비를 투입해 기존 84경간을 디자인형 난간으로 교체하고, 보행매트는 기존 시설이 훼손돼 교체했으며,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에 추가 설치한 13경간(약 20m)은 안전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학생푸소’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진 농가에 머물며 농작물 수확과 다도 등 다양한 농촌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농촌교육 ‘학생푸소’ 2천300여명 방문

농어촌 민박 프로그램…수확·생태 체험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민박 프로그램 ‘학생푸소’가 2025년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전국 18개 학교에서 총 2천344명의 학생이 참여해 농촌 현장에서 삶의 여유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경험했다.
‘학생푸소’는 학생들이 농가에 머물며 농작

물 수확, 다도·민화·생태 체험 등을 경험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진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도 추가돼 체험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참여 지역은 광주권 9개교(50%), 전남권 5개교(27%), 서울·부산 각각 1개교(5%), 교육청 등 유관기관 2곳(10%)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남권 학교의 참여가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며, 전남

지역 내 체험 교육 수요 확대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대비 참여 학교 수는 20%, 참여 학생 수는 41.3% 증가해 프로그램의 꾸준한 성장세를 입증했다.
하반기에도 ‘학생푸소’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20개 학교가 예약을 마쳤고, 참여 예정 학생 수는 약 2천800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광주권이 17개교(85%)로 가장 높고, 전남권이 2개교(10%), 서울이 1개교(5%)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 어란진항 ‘스마트 어항’ 속도 낸다

5년간 370억 투입 정비 사업

어업기반 확충·연륙교 조성 등

해남군의 유일한 국가어항인 어란진항이 위상 강화와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어란진항 정비 사업이 하반기 착공될 예정으로, 5년간 37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호

안시설 축조, 부족한 배후부지 확보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어업 근로자 쉼터를 신축하고, 공동 실내작업장과 해양쓰레기 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어항 정비는 물론 해남군 대표 특산물인 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

상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는 어항의 미래상을 그려나가게 된다.
어란진항 일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도 선정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또한 어불도 연륙교 조성사업도 21억원을 투입,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어란진항 일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란진항이 스마트 어항으로 거듭나 해남 수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업 환경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